

光州 十信寺址 梵字碑 및 石佛移轉始末

崔 夢 龍

光州市 西區 林洞 九二番地 舊 光州農業高等學校內에 全南地方 有形 文化財 一四號인 十信寺址 石佛과 一五號인 十信寺址 石碑①가 있는데 一九七五年 全南道教育委員會에서 光州農業高等學校를 移轉함에 따라 그敷地를 모두 個人에게 拂下해 버렸다. 이때 地方文化財 一四·一五號인 石佛과 石碑(圖一)를 전혀 考慮하지 않고 拂下하여 한때 이敷地를 買入한 個人들로부터 抗議騷動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그해 가을 道文化財會議에서 石佛은 光州市立博物館에, 石碑는 全南大學校에 移轉하기로 決定하였으나, 어떤 緣由에서 인지는 모르나 이러한 決定이 有耶無耶로 끝나 버리고 말았다. 그후 周圍에 民家가 들어서게 되고, 이 民家에서 流出된 汚物 등으로 因하여 石佛과 石碑가 倒壞狀態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급기야 光州市廳과 道文化財課에서는 移轉이 時急함에 따라 一九七七年 一二日 一三日에 道文化財會議를 열어 서, 現在 西區 林洞 九二(一二番地인 市有地(圖二)) 다시 말하여 石碑에서 東北向 約二〇m, 石佛에서 西北向 約五〇m 떨어진 老巨樹 近處로 移轉키로 決定하였다. 그래서 移轉은 一九七八年 一月 一四日 부터 二月 六日까지 이루어졌으며, 筆者는 移轉에 對한 監督을 光州市 廳으로부터 依頼받았다.

이 碑는 地台石에서 屋蓋石(加檐石)까지의 높이가 五·二五五m이고, 또 倒壞된 狀態로 서 있어 拓本하기가 곤란하였는데, 이번 移轉時 碑身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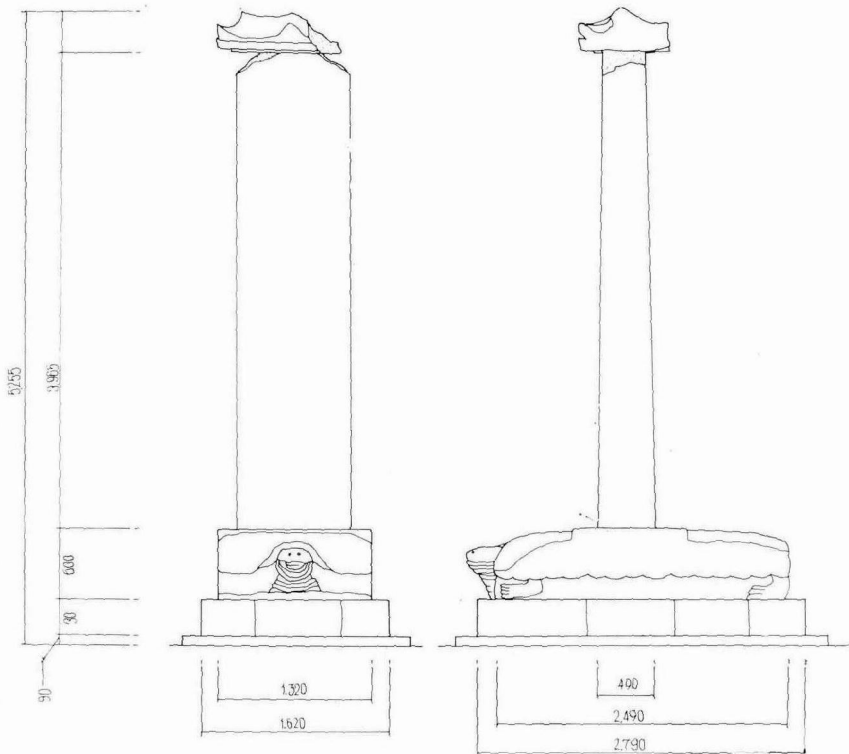


圖 1. 十信寺址 梵字碑 및 實測圖(平面, 側面)

分離하여 地上에 높혀 놓아 拓本을 쉽게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碑가 大佛頂尊勝陀羅尼經을 새긴 碑로만 막연히 推測하여 왔었는데③, 이번 拓本(圖三) 結果 碑文의 內容을 大略 把握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碑와 石佛의 移轉始末과 把握된 內容을 簡略히 摘記하여 봄으로써 平素 이 碑에 많은 關心을 보여 주신 黃壽永教授님의 回甲을 맞아 頌祝의 글로 삼고자 한다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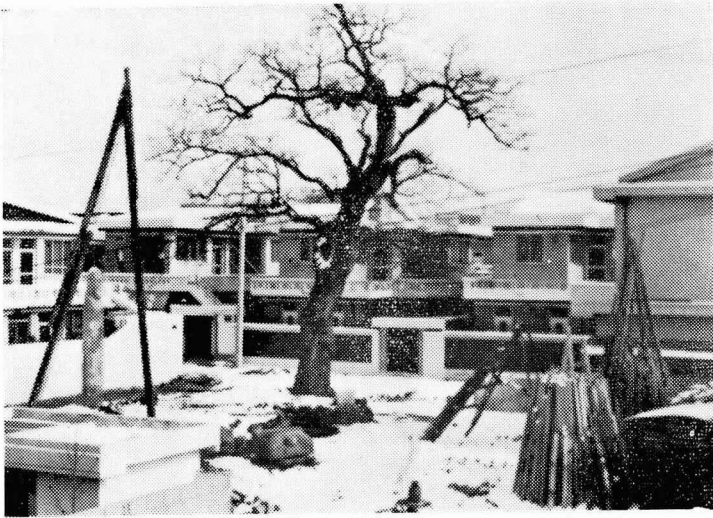


圖 2. 移轉光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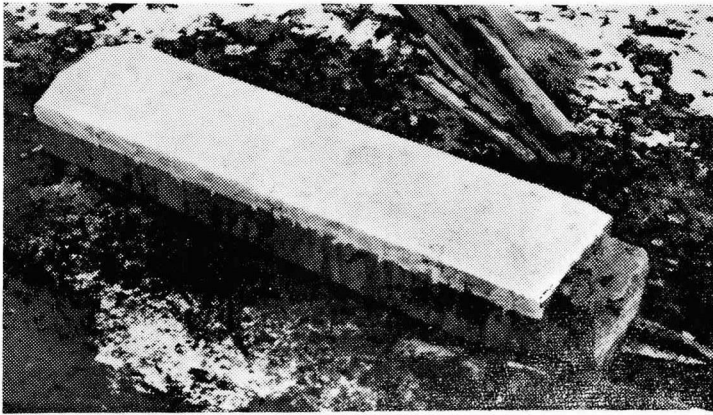


圖 3. 石碑拓本光景

이 碑는 元來 舊 光州農業高等學校內에 있었던 되지飼育場 옆 평탄한 台地위에 花崗岩을 長方形으로 다듬은 여러 개의 割石으로 地台石을 삼고, 그위에 碑座를 陰刻으로 파넣은 龜趺, 碑身, 加檐石(屋蓋石)의 順으로 結構되어 있었다. 그러나 屋蓋石의 一部分 缺失되어 있을 뿐 다른 部材는 모두 完全한 石碑이다.

解體時 이 碑를 자세히 調査해 본 結果 龜趺는 碑座의 長軸線이 平行으로 分割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元來 큰 石材를 마련하지 못해 두개의 石材를 합쳐 龜趺를 形成해 가고 있었던 같다. 또 屋蓋石과 碑身 사이에 두개의 長方形鐵釘을 박아 놓아 屋蓋石을 固定시키기 위한 것이 확인이 確認되었다. 碑身의 正面은 長方形, 側面은 上夾下寬의 梯形을 보이고 있다.

이 碑의 石材는 龜趺·碑身·屋蓋石 모두 花崗斑岩(Granite Porphyry)이며, 이러한 石材는 花崗岩과 斑岩의 境界地域에서 產出되는 것으로, 石質이 매우 弱해 風化 등으로 磨滅이 심한 편이다⑤. 이 碑의 細部樣式을 보면 屋蓋石은 新羅·高麗時代에 流行되는 典型的인 樣式인 螭首 代身에 李朝時代의 民墓앞에 자주 보이는 碑의 加檐石과 같은 八作지붕을 하고 있다. 碑身은 長方形으로 된 碑의 正面 上端에는 梵字를 새기고 그 아래는 碑文을 正面에만 陰刻해 놓고 있다.

그리고 龜趺에서 거북이의 머리는 약간 右側으로 向하고 있으며, 오른발보다 왼발이 前進된 形態로 陽刻되어 있고 또 거북이의 발위에 파도모양

을 區劃하고 있어 마치 거북이가 물위를 헤엄치듯이 寫實的으로 生動感 있게 彫刻하려고 한 痕跡이 역역하다. 그러나 彫刻手法이 退化되어 매우 稚拙하고 形式化된 面이 強하게 湧기고 있다.

이와 類似한 龜趺로는 靈光郡 佛甲面 母嶽里 佛甲寺에 있는 覺眞國師 碑가 있다⑥. 覺眞國師(高麗 元宗 一一年, 一二七〇年)~ 恭愍王四年, 一三五五年)의 이름은 復丘, 성은 李氏, 號는 無能叟·無能叟이며 諡號는 覺眞, 塔號는 慈雲이다⑦. 그는 松廣寺 一三世 國師이었는데, 忠定王二年(一三五〇年)에 主席을 사퇴하고 白巖寺(現 白羊寺)와 大師自身의 힘으로 一三四二년에 三初⑧을 한 靈光 佛甲寺에서 末年을 보내다가 恭愍王 四年(一三五五年) 白巖寺에서 入寂하였는데, 茶毘(火葬)한 遺骨은 佛甲寺에 모시고 恭愍王 八年(一三五九年) 李達表이 撰하여 碑를 세웠다 한다⑨.

따라서 十信寺址碑는 覺眞國師의 碑·龜趺와 비슷한 年代이거나 좀더 떨어지는 李朝初의 作品으로 볼 수 있겠다. 또 龜趺의 龜甲에는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에 있는 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碑(國寶 五九號, 一〇八五年)의 四角形龜甲紋에서와 같이 「王」字가 陰刻되어 있는 것이 注目된다. 그러나 이러한 文樣으로 高麗時代의 作品으로 斷定할 수 없고, 李朝初에까지 그러한 文樣樣式이 傳해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⑩.

碑文은 碑身 正面에만 長方形으로 區劃한 陰刻線안에 새겨놓고 있으며, 그 上部에는 長 八三cm, 幅 六八cm로 區劃하여 寶珠와 같은 文樣을 彫飾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 文樣이 梵字여서 이 碑가 梵字碑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 같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光山縣 佛宇條에 보며 『十信寺在縣北五里平地有梵字碑』라는 記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成宗(中宗時)이 冊 撰할 때까지 十信寺가 存在해 있었는지는 確實치 않으나 梵字碑는 存續되어 그 當時까지 남아있었다. 그리고 어떤 緣由에서 인지는 모르나 十信寺가 高麗 文宗時에 創建되었다는 記錄도 보이니 確實치는 않다⑪.

梵字라는 文樣을 仔細히 보면 梵字를 利用하여 碑나 蓋瓦 등에 裝飾하기 위해 圖案化한 것임을 알 수 있다⑫. 이것은 梵字 밑에 있는 碑文 上端에서 判讀된 『大佛頂尊勝陀羅尼幢』이라는 글과 比較해 볼 때 梵語의 음(om, 唵)字를 圖案化⑬한 것으로 여겨진다. (圖四)

음(唵)字는 印度에서 一般的으로 宗教的인 儀式的 前後에 暗誦한 것으로 헤브라이語의 아멘(amen)과 같은 意味를 가진 것이라 한다. 特히 眞言(陀羅尼)密敎에서는 神聖한 呪語(密語)가 되며, 法身·報身·化身이나 歸命·供養·三身의 意味를 지니고 있다 한다⑭.



圖 4. 梵字拓本光景

幢 尼 羅 陀 勝 尊 頂 佛 大

1	多	伐	摩	薩 ²¹	伐 ¹⁵	多	伽	者 ^㉔	毗	卍
2	地	阿	摩	末 ¹⁷	他 ¹⁸	伽	伽	者 ^㉔	輸 ⁷	薄
3	(瑟)	娑	(訶)	囉	拏 ¹⁹	伽	卍	多 ²	馱 ⁵	伽 ²
4	吒	地	耶	娑 ¹⁷	毗	多	(毗)	伐 ²	耶	帝 ³
5	卍	瑟	卍	末	舜	他	(舜)	帝 ³	摩	帝 ³
6	地	(社)	鉢	囉	提	瑟	提	帝 ³	三	帝 ³
7	地	伍	⊗	勃	鉢	吒	烏	帝 ³	鼻	嚧 ⁴
8	瑟	勃	迦 ⁵	陀	羅	卍	瑟	嚧 ⁴	多	路
9	卍	陀	耶	地	(唎)	地	尼	多	幡	(吉)
10	帝	勃	毗	瑟	(舜)	地	沙	婆	娑	夜
11		陀	(舜)	卍	提	瑟	毗	娑	娑	㉑
12		薄	提	耻 ¹⁴	毗	恒 ¹⁶	折 ¹²	娑	娑	底
13	慕	陀	薩 ¹³	多	薩 ²¹	耶	耶	娑	娑	卍
14		耶	(婆)	(舜)	普	(阿)	舜	娑	(匠)	卍
15		卍	揭	(提)	(吒)	(地)	提	(阿)	(囉)	卍
16		陀	底	跛	勃	舜	娑	(訶)	拏	瑟
17		耶	(跛)	(闊)	(地)	提	跋 ¹²	囉	伽	吒 ⁵
18		娑	唎	嚧 ¹⁷	(舜)	娑	折	阿	底	耶
19		嚧	(舜)	末	(提)	末	囉	囉	伽	勃
20		多	提	折 ¹²	(闊)	耶	迦 ⁵	囉	陀	陀
21		(跛)	(薩)	囉	耶	②	耶	囉	耶	耶
22	丁	唎	婆	(闊)	(夜)	地	僧	濕	薄	伽
23	已	(舜)	(囉)	⊗	(夜)	瑟	訶	(珞)	伽	卍
24		提	(幡)	⊗	毗	耻 ¹⁴	多	(三)	伐	底
25		薩 ¹³	揭	⊗	(闊)	(伍)	卍	朱	舜	恒
26		婆	多 ⁸	蓋 ²³	耶	摩	(舜)	地	(提)	姪
27		(多)	三	婆	毗	(你)	提	(伍)	阿	他
28		他	摩	伐	(闊)	摩	薩 ¹³	薩	毗	他
29		揭	卍	(覩)	耶	(你)	娑	馱 ⁵	瑟	嚧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안의 글자는 磨滅되어 判讀할 수 없어 本文 第三張~五張 사이에 나오는 陀羅尼와 比較하여 넣었다.

이 碑에서 보이는 佛頂尊勝陀羅尼란 佛頂呪·大佛頂陀羅尼·楞嚴呪이라고도 하며, 楞嚴經에 나오는 大佛頂의 眞理·德을 說法하는 陀羅尼인데 ⑮, 이 法을 尊勝法이라고도 한다. 尊勝法이란 釋迦如來佛頂으로부터 出現한 「佛頂尊勝」을 本尊佛로 삼고 尊勝陀羅尼經에 의해 「尊勝陀羅尼」를 의우면서 一切의 惡業이 있는 생각이나 迷妄에서 벗어나려는 密敎의 修道法으로 疾病을 막거나 長壽 등 其他 모든 것을 念願하는 祈禱法을 意味한다 ⑯.

따라서 이 碑는 이와같이 密敎系統의 眞言(陀羅尼)을 새겨 놓은 것이 며, 또 이러한 密敎系統으로 볼 때 梵字를 「음」字의 圖案으로 보아도 無妨하겠다.

碑文 上端에 陰刻으로 새겨진 『大佛頂尊勝陀羅尼幢』은 『梵字나 佛敎

이 石碑의 正面을 拓本하여 보았으나 碑文을 磨滅이 심해 全文을 刻

三、

의 어느 經文 特히 陀羅尼(眞言)를 六角 혹은 八角의 石柱에 새겨 置안 에 세우는 일이 있어 이것을 經幢이라고 이르는데……中略……黃海道 海州와 平安北道 龍川의 大佛頂陀羅尼幢이 있고 破片에는 開城 善竹橋 의 橋材와 平壤 法首橋의 餘材에 쓰인 梵文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라는 崔南善氏의 글 ⑰에서와 같이 이 碑도 「음」字라는 梵字와 함께 陀羅尼經 을 새겨 놓은 經幢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 碑를 梵字碑 또는 經幢이라고 불리워도 타당하다 하겠다.

表 1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揭 薩 鉢 闍 怛 末 怛 伐 耻 婆 折 愉 摩 娑 三 馱 唵																						
耶 路 帝 伐 卍																						
伽 藍 娑 跋 休 摩 摩 婆 幡 社 囉 闍 愈 訕 馱 娑 陁 烏 牟																						
夜 盧 底 婆 南																						
(一) 一行 (一) 五 (三) 五 (一) 七 (一) 九 (一) 一八 (一) 二二 (一) 四 (三) 二九 (四) 一 (三) 五 (二) 六 (一) 三 (七) 二 (七) 二六 (七) 一 二九 (九) 九 (十) 一四 (十) 一七 (一) 二九 (二) 三 (三) 二八 (二) 七 (九) 二七 (一) 一三 (一) 一三 (三) 二二 (四) 一 (二) 五 (一) 八 (八) 二〇 (四) 二九 (五) 二九 (九) 一四 (十) 二六 (五) 一 (二) 六 (一) 四 (八) 二二 (六) 一 (八) 二八 (六) 一 (二) 一 (六) 一 (九) 八 (二) 八 (五) 五 (一) 一 (一) 三 (八) 一 (八) 二 (七) 二 (七) 二 (八) 一 (九) 一五 (九) 一五 (十) 二九																						
비 고																						

表 2

㉠	㉡	㉢	㉣	㉤	㉥	㉦	㉧	㉨	㉩
一內	一間	三間	脫落된字	重復된字	一間	二間	添加된字	一間	一間
毗菩	囉婆	囉鞞跋闍	(二字) 夜多	脫落	夜素伽	(四字) 毗始	鉢羅	鉢羅	鉢羅
(十) 一五)	(九) 七)	(八) 二三, 二四, 二五)	多他 (七) 二, 三사이)	輪陁夜 (三) 卍)	(三) 一〇 (五) 九 (六) 二二 (七) 一一)	(九) 二九 (十) 六 (十一) 九)	(薄伽伐底) (一) 二二, 二三, 二四, 二五)	(一) 一 (二) 二	(一) 一 (二) 二
問數原文에 있는 字, 비 고									

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拓本에 의해서 判讀된 字들을 癸卯(一二四三)年, 高麗 高宗 三〇年)에 高麗國 大藏都監에서 雕造한 大藏經中 大唐 京非社行 顛奉詔譯(顛譯尊勝陀羅尼經이라고도 함)인 「佛頂尊勝陀羅尼經」中 18 說陀羅尼(波利譯尊勝經)에는 說呪·陀羅尼法으로 되어있고와 比較해 보면 借音으로 쓴 字와 脫落된 字以外에는 內容이 꼭 같은 結果를 알 수 있었다.

判讀된 碑文은 아래와 같으며 縱二九行 橫一一行으로 字體의 크기는 約九cm 程度이며 楷書體로 되어있다.

이 表를 佛頂尊勝陀羅尼經과 比較하여 보면 表와 같이 相異한 結果를 얻을 수 있다.

(表一)은 碑文과 原文과 比較하여 借音된 字나 音이 類似한 字임.
 (表二)는 原文과 比較하여 脫落된 字나 添加된 字임.

등에 의해 新增東國輿地勝覽이 編纂된 中宗 二五年(一五三〇年) 以前에 만들어진 東國輿地勝覽이 編纂된 年代인 成宗 一七年(一四八六年)까지 올려 볼 수 있겠다.

이 碑文의 末尾에 「丁巳」란 干支가 보이는데 朝鮮朝初 成宗 一七年(二四八六)보다 앞서는 丁巳年은 世宗 一九年(一四三七年)으로, 따라서 이 碑의 立碑年代는 世宗 一九年(一四三七)이라고 推定된다고 하겠다¹⁹⁾.



圖 5. 龜趺

四、

이 碑의 年代는 龜甲紋에 새겨져 있는 『王』字(圖五)와 같이 高麗의인 要素도 보이 나, 李朝時代に 流行하는 八作지붕 형태의 屋蓋石(加擔石)、覺眞國師(一三五九年 立碑)의 龜趺보다 退化된 龜趺의 樣式 등으로 볼 때 高麗의 傳統을 이어받은 李朝初의 作品으로 보여진다.

특히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이 碑의 碑名이 記錄되어 있어 이 碑의 下限은 李荇客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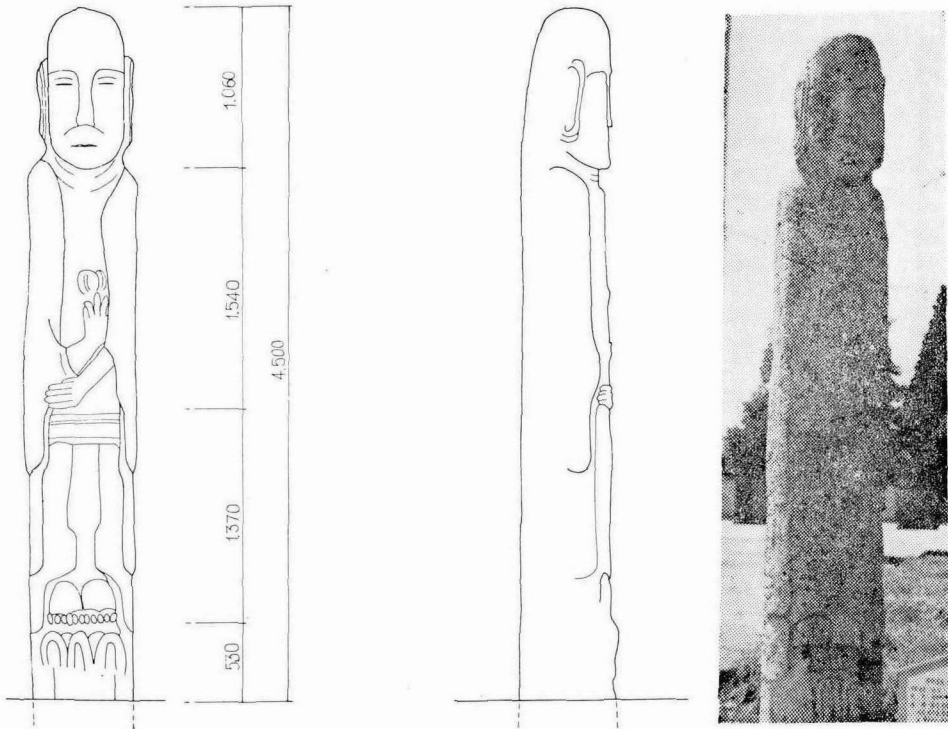


圖 6. 大皇寺址石佛 및 實測(圖面, 側面)



圖 7. 石佛이 새겨진 化佛(下端部)

五、

其他 石碑와 함께 같은場所로 移轉된 彌勒立像(圖六、圖二)은 臺座 以上 總高四、五 m、基壤매물부 一八、m로 直徑〇、六五 m、데 11、三 m의 八角形石柱에 單瓣蓮花文의 臺座、그리고 蓮化臺座의 兩側 面에 조그마한 化佛(圖、七)을 陽刻해 놓고 있는 佛像이다.

그런데 化佛의 경우 너무 磨滅이 심해서 어떠한 菩薩을 彫飾해 놓았는지 把握할 수가 없었다.

이 佛像의 樣式을 보면 現在 머리에는 肉髻가 없이 그대로 민머리(素髮)인데 移轉時 查調해 본 結果 高이 三〇 cm 가량의 구멍이 머리에서 있어 本來 益山古都里의 石佛立像²⁰이나 坡州 龍尾里石佛立像²¹처럼 四角形·八角形 등의 寶冠이 씌어져 있던 菩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이 眉間사이의 白毫孔、목의 三道、衣褶은 通肩衣 등을 陽刻해 놓고 있으나 石柱自體 때문에 볼륨감이 없고, 얼굴에 비해 어깨幅의 比率이 거의 없어 매우 醜惡한 모습을 하고 있다. 오른손은 들어 寶珠같은 것

을 쥐고 있으며, 왼손은 내려 袈裟를 잡고 있다. 이러한 佛像은 傳稱 그대로 彌勒佛로도 볼 수 있는데, 總高六、三 m 들레 一、三 m 나 되는 巨大한 立佛이다. 이 佛像은 元來 善心사지 또는 大皇寺址에서 옮겨왔다고 하며²²、그 위치는 現在의 十信寺址와 無關하다.

이와같이 巨大한 石柱에다 立佛을 模刻한 것은 長柱와 같이 巫俗의인 性格이 더 깊으며、美術史의으로는 매우 稚拙한 作品이라 하겠다. 이러한 類型의 佛像은 觀瀾寺 彌勒佛 이후 全羅·忠清道地方에서 많이 發見되는데²³、특히 사다리꼴의 石柱에 佛像의 特徵을 模刻한 益山 古都里 石佛立像(寶物 四六號、高麗時代)과 같은 系統의 作品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一定한 佛像의 彫刻樣式이 없이 그 自體拜禮의 對象物로서만 滿足하기 위해 高麗·李朝時代에 通稱 彌勒佛이란 佛名下에 세워지는 例가 많으며、彌勒菩薩은 釋尊入滅後 五六억七천만년후 娑婆世界에 出現하여 華林園안의 龍華樹 아래에서 成道하여 모든 衆生을 求濟한다는 未來佛의 彌勒佛 信仰의 背景下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이 佛像의 立佛年代는 기껏해야 彫刻手法로 보아 石柱에 模刻한 石像이며、또 그 위에 寶冠을 쓴 것으로 益山 古都里 石佛立像이나 坡州 龍尾里 石佛立像(寶物 九三號、高麗時代)、長城 院德里 彌勒堂에 있는 彌勒佛(高麗末)²⁴과 같이 高麗時代의 作品으로 推定되나 年代는 오히려 高麗末~李朝初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많겠다.

註

① 이名稱은 「全南文化財圖錄」(韓國文化財保護協會 全羅南道支部刊、一九七五、三、p. 一七七~七八)에 실려있는 公式名稱이다.

이 石佛과 碑가 元來 位置가 아니고 한번 옮겨졌다고 한다. 또한 이冊에 의하면 年代도 石佛이 高麗時代、石碑는 筆者의 見解와는 달리 新羅下代(高麗初로 막연히 推定되어 있다.

② 이關係 書類를 보면 아래와 같다.

A、一九七七年 六月 二三日 光州市 西區廳에서 移轉關係 審議를 要求(충무

一三五七(八七二)

B、一九七七年十月十二日 石佛 및 石碑를 가능하면 原位置에 保存하라는 指示事項이 내려옴。(문화 一〇八〇—一六七二)

C、一九七七年十二月九日 地方文化財會議에서 光州市 計劃에 따라 老巨樹가 있는 現市有地로 옮길 것을 決定.

D、一九七七年十二月十三日 地方文化財 移轉承認(문화 一〇八〇—八九二)
E、一九七七年十二月二十日 地方文化財 設計承認申請(문화, 一〇八〇—六七六)

F、一九七七年十二月二三日 地方文化財 設計承認(문화 一〇八〇—九三三)
G、一九七七年十二月三十一日 筆者에게 監督依頼 要請.

③ 崔夢龍, 『全南의 古蹟』(三) 光州經濟 一九七四、十一、pp.二八—二九.

④ 여기에 내놓고자 하는 글은 平素 學恩을 입어온 筆者가 六月十日로 回甲을 맞이 하시는 黃壽永教授님을 頌祝해 드리기 위한 것이다. 또 이 글이 作成되기까지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다. 東國大所藏의 高麗藏經(影印本) 중 「佛頂尊勝陀羅尼經」을 複寫해 보내주신 東國大博物館 張忠植先生님, 그리고 추운 겨울 拓本을 도와준 全南大 李榮文·李哲杓·金南允君들에게 感謝드린다.

⑤ 全南大 師大 科學教育科 柳煥琇教授님이 石質鑑定을 해주셨고, 花崗斑岩은 光州附近에서는 和順道岩, 長城 갈재 近處 등에 分布되어 있다 한다.

⑥ 崔夢龍, 『全南의 古蹟』(一九) 光州經濟 一九七五、六、p.二六.

⑦ 韓國人名大辭典, 新丘文化社. p.三二九.

⑧ 朝鮮寺刹寺料 上. p.二六二에 『元順帝至元元年壬午, 高麗忠烈王時覺後師 覺眞國師三朔』이란 記錄이 보인다.

⑨ 全南觀光資源 一九六六. pp.二八四—五.

⑩ 崔夢龍, 『莞島觀音寺 木造如來坐像과 腹藏遺物』美術資料 一九七七、六、p.六九 및 註. 二六.

⑪ 朴堉洪, 「無等山」全南每日出版局 一九七六、p.二五九.

⑫ 東國大 黃壽永教授님의 傳言에 의하면 이러한 文樣은 稀貴하지만 李朝時代의 蓋瓦에 나타나며 東國大博物館에도 몇點 所藏되어 있다 한다.

⑬ 鄭泰燮, 『標準梵語學』一九六八、七、p.三二二, 및 釋智賢, 『密教』玄岩社 一九七七. p.一六九

⑭ 中村 元, 『佛敎語大辭典』上, 東京書籍, 一九七五、p.一三七, 그리고 中

트라 「음」을 活性化한 음(Hum)에 대한 密敎的인 性格은 釋智賢 前掲書(註二二) pp.一六七—一七六에 仔細히 나와 있다.

⑮ 前掲書(註一四) 下. p.一一九六.

⑯ 中村元 監修 『新佛敎辭典』一九六七.

⑰ 崔南善, 「朝鮮常識問答讀編」三星文化文庫 一七、一九七四、四、pp.一三六—一三七. 그리고 平北 兪辰균 兪동면 동부동所在 佛頂寺에 있는 六角形으로 된 五層의 陀羅尼幢 一面에는 大佛頂陀羅尼幢이라 새기고 나머지 面에는 梵字를 새기고 있다 한다(兪희·兪하, 『불교사전』一九六一. p.三三七)

⑱ 「佛頂尊勝陀羅尼經」으로는 高麗大藏經(東大影印本)에 顯譯尊勝陀羅尼經(二七二—二八〇) 十張과 波利譯尊勝經(二九—二九三) 一三張에 있다.

⑲ 崔夢龍, 前掲文(註十) p.六九.

⑳ 文化財大觀 寶物篇(中) 文化財管理局 一九六九、p.三〇.

㉑ 前掲書(註, 二〇) p.五四.

㉒ 全南觀光資源 一九六六. p.九五.

㉓ 崔夢龍, 前掲文(註, 二) p.二九 및 金善淑 『觀燭寺流派的 彌勒佛』全南大 文理大史學科 卒業論文抄 一九七三、一一、pp.八五—九七.

㉔ 崔夢龍, 『全南의 古蹟』(二) 光州經濟, 一九七三、一〇、p.二〇.

(一九七八、二、二〇 全南大學校 文理大 史學科 助敎授)